

## 단일 공동체에서 소셜 네트워크 공동체로 - 한국의 네팔공동체 30년 역사에 대한 기록\*

양혜우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 국문초록

1993년 1월 23일 22명의 네팔 노동자들은 종로성당에서 첫 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네팔 공동체 'NCC(Nepalis Consulting Communities)를 창립했다. 네팔사람들은 계급, 에스닉, 종교, 정치적 지향점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낯선 나라에서의 생존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모이기 시작했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집회, 농성,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을 이끌어 가는 핵심 주체로 성장했다. 한국의 이주노동 운동사에서 네팔 노동자와 네팔 공동체의 조직적 활동을 빼놓으면 기록할 것이 없을 정도로 노동권을 확보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폭언, 폭행에 고통받고 있으며 60여 명이 되는 네팔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이다. 지금도 근로기준법 63조에 의해 일정한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노동을 강제당하며 냉난방, 화장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텔레비전도 와이파이도 연결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듯 네팔농업노동자들의 문제가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네팔 공동체의 투쟁은 멈추어 버렸을까? 이 글은 네팔 공동체 30년 동안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현재 네팔 공동체가 직면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네팔 공동체의 성격 변화는 많은 한국의 이주 운동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이주운동사, 네팔 공동체 역사, 사회 연결망, 분열과 갈등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096142)

## 1. 멈춰버린 저항

1993년 1월 23일 22명의 네팔 노동자들은 서울 종로성당에서 네팔 공동체 NCC (Nepalis Consulting Communities) 창립을 여는 첫 모임을 개최했다.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부상 혹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같은 해 NCC 창립 멤버들은 네팔 민속 명절인 더싸인(Dashain) 축제를 개최하고 전국에 흩어진 네팔 노동자들을 불러 모았다.

NCC는 계급, 에스닉, 종교, 정치적 지향을 초월하여 한국이란 낯선 나라에서 안전한 노동과 서로 돌봄이라는 목표로 모이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착취적인 법과 제도에 직면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 왔다. NCC 중심으로 모인 네팔 노동자들은 인권과 노동자로서 권리 확보를 위한 집회, 농성, 캠페인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 NCC가 보여줬던 조직된 결속력과 단결된 투쟁을 찾아보기 어렵다. 고용허가제가 제정된 후 예전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산업연수생으로 감내해야 했던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이 주된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 이동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농업노동자들<sup>1)</sup>이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등 외국 인력을 고용주에게 종속시키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을 사업주에게 부여한 이주노동자 정책 기조는 3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네팔 노동자들의 든든한 지지대가 되었

---

1)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축산 어업은 기후 및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근로 시간이나 근로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고 기후와 농한기에 따라 설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 시간과 휴게시간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던 NCC의 저항은 왜 멈추어버렸을까?

더욱이 네팔 노동자들의 자살은 큰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윤미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스스로 생을 마감한 네팔 노동자는 23명으로 스리랑카 5명, 미얀마 4명, 인도네시아 3명<sup>2)</sup>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고<sup>3)</sup> 2011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자살한 네팔 노동자는 60여 명에 달한다.

〈표1〉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자살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자살자	10명	11명	3명	7명	15명
출신 국가별 현황	네팔 23, 스리랑카 5, 미얀마 4, 인도네시아 3, 캄보디아 3, 우즈베키스탄 2, 태국 2, 필리핀 2, 베트남 1, 몽골 1				

\* 고용노동부 자료

노동환경 건강연구소(2019)는 네팔 노동자를 자살로 이끄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우울 요인을 측정한 결과 네팔 노동자에게서 실망·절망(29%), 그리움(26%), 고립감·외로움(11.8%), 신체적 질환·서러움(10.7%), 초조·긴장(6.5%), 책임감(4.1%)의 정서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며 단절과 고립이 우울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춤춤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 어려움에 부딪친 네팔 노동자를 찾아내 고립되지 않도록 공동체로 불러들이고, 천여 명이 모여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지역마다 대표선수를 선출해 축구 리그전을 펼치던 네팔 공동체

2) 국회의원 윤미향 보도자료 <https://blog.naver.com/mhyang530/222526236924>

3) Madhu Sudhan Atteraya(2021)는 한국에 있는 네팔 노동자의 자살 원인을 네팔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느슨한 동료애, 고된 노동과 해로운 작업환경, 도박, 이주노동에 대한 가족의 몰이해, 이주노동자 간의 경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 적응과 의사소통 장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이주노동자 자살 분석 연구에도 신체적 질병, 낮은 임금, 긴 노동시간, 우울증이 자살과 관련이 있고, 이스라엘의 필리핀 여성 간병인의 자살 요인은 차별과 학대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의 열기는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억압적인 한국의 법과 제도를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강제 추방도 마다하지 않고 투쟁했던 저항은 왜 멈춰버렸을까? 유독 많은 네팔 노동자들의 자살은 서로를 연결하며 한국 사회로부터 받은 인간에 대한 무시와 종속, 좌절과 분노를 투쟁으로 엮어 냈던 공동체의 소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사회연결망이 점점 약화된 지금 네팔 공동체를 분석하는 것은 네팔 노동자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인정투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NCC가 그동안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어떤 도전과 응전을 통해 발전 분화했는지, 과거와 같은 응집력이 현재에도 유효한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한국의 이주 운동사에 있어 네팔 공동체를 빼놓으면 기록할 게 없을 정도로 중요한 몫을 담당해 왔지만, NCC 운동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사 대부분이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이주노동자 상담단체들이 어떤 노력과 투쟁을 벌여 왔는지 분석(설동훈 2003년, 박경태 2005)하거나 2003년 강제 추방에 저항한 명동성당 농성 노동자(김선옥 2005, 정정훈 2006)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연구되었지만, 당사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독려 지원했던 공동체의 역동성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 종교 혹은 특정 교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인정투쟁과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응하는 운동 주체로서의 네팔 공동체 활동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NCC에 관한 연구가 어려웠던 것은 과거 NCC 핵심 지도부와 구성원들의 귀환으로 NCC의 역사를 관통하는 서사를 들을 기회가 없고, 이들의 삶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가 NCC 운동사를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NCC 지도부와 십수 년 간에 걸친 연대와 교류가 있었고 여러 차례 네팔을 방문하여 전임 NCC 대표 또는 전임 핵심 지도부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귀환 이주노동자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2003년, 2009년, 2013년 네팔을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고, 2009년 인터뷰 자료는 석사 논문『귀환 이주활동가의 사회운동과 초국가적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에 반영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부족한 자료는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보완했다. 현재 활동하는 재한네पाल협회 리더들과는 2022년 8월-9월까지 두 차례의 대면 인터뷰와 2차례의 전화 인터뷰를 시행했다.

〈표2〉 인터뷰 참여자의 활동 시기와 사회적 배경

	참여자	참여조직	종교, 종족	성별	입국 당시 직업 및 학력
1기	A	창립회원	힌두	남	대졸, 교사
	B	창립회원, 대표	힌두	남	사업
	C	창립회원, 운영위원	힌두	남	대졸, 교사
	D	대표	소수 민족, 불교	남	대졸, 교사
	E	대표	힌두	남	대졸, 은행원
	F	불자모임 부대표	소수 민족, 불교	남	고졸
	G	운영위원	소수 민족, 불교	여	대졸, 간호사
2기	a	NCC 부대표	소수 민족, 불교	남	대졸, 교사
	b	UNMA, 노동조합	소수 민족	남	대학 재학
	c	UNMA, 노동조합	힌두	남	고졸
3기	<가>	1, 2기 NCC 회원 재한 네पाल인 대표	힌두	남	대졸, 여행사 음식점 운영
	<나>	재한네पाल인 대표	소수 민족, 불교	여	대학 중퇴, 여행사 운영

## II. 이론적 배경

### 1. 공동체 논의

공동체란 표현은 어디서나 사용되고 공동체의 가치나 서사도 변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고 학술적으로도 논쟁적이다. 페르디난트 톨니스(Ferdinand Tönnies)는 공동체(Gemeinschaft)

와 사회(Gesellschaft)개념을 구분하였다. 그는 사회란 인위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계약에 의한 차가운 연합이라고 생각한 반면, 공동체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전통적이고 감정적인 고유한 인간의 결합으로 해석했다(Rosa, Hartmu 2017:40). 사회가 도시, 정당, 회사, 국가 등 익명의 사회 참여자들이 업무상 교환관계를 이루는 근대적 공간이라면 공동체는 가족, 친족, 시골 마을, 민족과 같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관계들의 결합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보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공동체는 현대화 과정에서 상실된 안정감이 투영되는 장소로 개인이 자신의 성향을 형성해 가는 수단이며 인격적인 자유가 가능한 곳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지역, 연대, 충성심과 관련된 공동체는 외부에 대한 경계를 세우고 타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하며 구성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배타적인 국민국가 단위의 민족 공동체 개념은 국가사회주의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어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이 타자를 속죄양 삼아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 참극을 낳기도 한다.

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공동체에 내재한 폐쇄성과 집단성, 배타성으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다가도 공동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부정하는 자유주의 담론의 한계가 논의될 때마다 다시 떠오르곤 한다. 공동체 담론은 식민주의와 관련된 투쟁이나 분리주의적 해방운동, 차이의 정치를 요구하는 소수자들의 정치 운동에 이용되며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다. 공동체의 모습도 변화의 과정을 거쳐 과거엔 영토, 민족, 혈연에 기초한 거대한 집단을 공동체 단위로 간주했다면 현대의 탈 전통화된 공동체는 소소한 생활세계, 체험 세계,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세계를 구성단위로 삼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과 결합하여 우리 사회 내 새롭게 공동체를 응집시키는 방탄소년단의 아미(ARMY)와 같은 팬덤(김현정 2021), 채식주의자, 소수 패션 취향이나 특정 브랜드 애호가들의 소비를 공유하는 취향 공동체(구선아·장원호 2020)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임도 공동체로 해석하고 있다. 이주민 공동체도 전통적

특징인 멤버십, 회비, 회의와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강한 연결망을 갖는 공동체였다면 최근의 이주민 공동체는 SNS를 통한 온라인 공동체가 소통과 연결의 수단이 되고 있다.

## 2. 사회자본과 사회연결망

사회자본에 관한 개념은 행위자들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행위자 중심의 논의에서 발전했다. 무형의 자산을 일컫는 사회자본이란 개념은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경영학 등 정부 정책 담당자와 경제 분석가들도 두루 사용하는 개념(김상준 2004:63)이지만, 합의되거나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사회자본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개인이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는 반면 거시적 접근은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며 사회 자본이 민주주의나 경제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부르디외(Bourdieu)는 결속력을 가진 공동체 구성원들이 오랜 교류를 통해 소속감, 신뢰, 호혜성을 통해 얻어내는 사회관계를 사회자본으로 정의하며 사회자본은 경제 자본처럼 생산적인 속성과 등가 교환할 수 있는 자본은 아니지만, 경제 자본과 같이 불평등과 착취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명명한다. 하지만 콜만(Coleman)은 사회자본을 합리적 선택 이론의 맥락으로 설명하며 의무와 기대 신뢰 구조 속에서 내가 도움을 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돕겠구나'라는 신뢰가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의무와 기대 신뢰 구조를 갖게 되면 자신이 가진 정보를 기꺼이 공유하여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결국 물적 자원 교환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조직, 공동체에 속해 신뢰와 호혜성을 쌓아야 하므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규범성과 규칙을 수용해야 하지만 일단 사회관계망 안에 속하게 되면 모든 사회자본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콜만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 자본을 공공재로 해석한다.

사회자본 개념을 대중적이고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올려놓은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이다. 사회자본은 구성원들의 높은 연대, 공익 지향, 신뢰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강한 사회는 다수의 폭정을 효율적으로 방지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비효율적인 정책과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론은 경제 발전을 이룬 이탈리아 북부와 경제적으로 낙후한 남부 지역의 차이점을 분석한 연구에서 도출됐다. 그는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 지역의 공무원이 능력이나 정치적 이념 등 대부분의 특성에서 차이가 보이지 않는 데 비해 시민참여와 풀뿌리 조직에서만 격차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자치의 효능이 높은 북부지역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재정 자본으로 전환하는 연결망 자본주의(Network Capitalism)를 형성하지만, 시민참여와 자치가 취약한 남부 지역은 정치적 비효율성을 초래해 경제적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는 해석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라이온스클럽이나 교회, 동호회, 함께 볼링을 치는 활동 등을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마을 치안을 개선하고, 연결망 자본을 가동해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사회복지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퍼트넘의 사회자본 논의는 이주민 공동체 내에서 작동하는 사회자본의 성격을 잘 설명해 준다. 이주민 공동체의 경우 구성원 간의 신뢰와 연대, 협력이 돈독할 경우 음주, 싸움, 도박과 같은 문제가 줄어든 반면 이주민 공동체가 없거나 약한 사회관계일 경우 일탈이 자주 발생하는데 사회연결망 강도가 이주 공동체 내부의 규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로버트 퍼트넘의 논의는 신자유주의로 인한 자본 권력의 문제를 간과하고 시민참여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을 받는다(박민영 2017:130).



### III. 1기 : 계몽 공동체 (1991~1998)

#### 1. 네팔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해외 이주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기슭에 위치한 네팔은 50여 개의 민족과 92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민족 국가이다. 네팔의 근대 역사는 1769년 서부 구르카(Gurkhas) 지방에서 발흥한 나라얀 샤(Prithvi Narayan Shah) 왕이 하나의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시작됐다. 카트만두 계곡 부족을 정복한 샤 왕국은 약 100년간 독립 왕국을 유지해 오다가 1820년 쿠데타를 일으킨 라나 장군에 의해 붕괴한다.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던 영국은 쿠데타 세력인 라나 가문 정권을 지원해 라나 가문은 영국군이 철수하기 전까지 약 100년간 세습과 전횡을 누리다가 영국 식민지 철수와 함께 네팔의회당(NC: Nepali Congress Party)이 이끄는 혁명군의 봉기로 무너지게 된다. 권력을 장악한 네팔의회당은 서구식 의회민주주의를 모델로 헌법을 제정하고 왕정을 복귀시킨 후 국왕과 민선 정부가 권력을 공유하는 입헌군주제를 선포한다. 하지만 야욕을 드러낸 국왕 마헨드라(Mahendra)는 민주주의는 네팔에 어울리지 않는 외래 사상이라면서 1962년 무(無)정당 체제인 판차야트(Panchayat)<sup>4)</sup>를 도입하고 의회와 내각을 해산한 후 모든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국왕은 판차야트를 소집, 폐지할 수 있는 권한, 대법원장, 판사 등 모든 주요 관료 임명권, 군 통수권, 영장과 재판 없이 18개월간 구금할 수 있고 언제든지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사태 발동권 등 초법적 권력을 가지고 민중 위에 군림했다. 참다못한 국민들은 판차야트 체제 종식과 다당제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다. 대부분의 민족 집단과 카스트 계급,

4) ‘판차’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일종의 촌락 단위의 5인 원로모임이었는데, 이를 국가 단위로 확대한 것이 바로 판차야트이다. 의회 기능을 대신한 판차야트는 직접 선거로 선출된 112명과 국왕이 임명한 28명을 더해 총 140명으로 구성된 무정당 의회이다.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등 민족, 계급, 성별을 불문하고 인구 절반 정도가 시위에 참여할 정도(Gerrg Katsiaficas 2015:350-353 참조)로 판차아트 체제에 대한 분노가 컸다. 경찰의 무력 진압과 체포, 구금과 고문에도 불구하고 시위대의 저항은 멈추지 않았고 시위대에 대한 탄압이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은 더 거세져 민주적 입헌군주제 주장을 넘어 왕정 폐지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성난 군중에 의해 왕궁이 습격당할 위기에 처하자 국왕은 재빨리 엘리트 중심의 온건 야당인 네팔의회당과 협상을 맺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약속하고 봉기를 종결시켰다. 민중봉기 이후 서구형 입헌군주제와 함께 모든 정당 활동이 합법화됐고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헌법 개정과 총선 실시 등 민주정치 체제로 전환했다. 3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네팔의회당이 과반수를 얻었고 네팔 공산당(CN-UML)은 제일 야당이 되면서 다당제 정치제도가 실현됐다. 하지만 아래로는 인도가 위로는 거대한 히말라야산맥에 가로막힌 지정학적 구조로 산업 육성과 무역 발전을 통한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개혁 개방과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자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눈을 돌렸고 그중 일부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 2. 사회안전망으로서 NCC

한국에 온 초기 네팔 노동자들은 한국에 가면 ‘일할 곳이 많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단순한 정보 하나만 믿고 한국에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하 10도가 넘는 매서운 한파에도 얇은 스웨터 하나만 입고 목도리만 살짝 두른 채 공항에 도착해 덜덜 떨 정도로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처음에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랬다. 한국이란 나라가 아시아에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을 뿐 한국 사

람, 문화, 생활 같은 건 아예 몰랐고 ‘안녕하세요’도 한국에서 처음 배웠다.” (1기 C)

이와 같은 증언은 당시의 한국에 대한 국제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사회연결망이 얼마나 부재했는지를 말해준다. 한국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줄 사람도, 공항으로 배웅 나와 줄 사람도 없이 이 태원이라는 곳에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막연한 정보 하나만 가지고 입국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사회연결망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의 네팔 노동자들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했고 정착 후에도 언어 장벽과 열악한 노동조건, 위험한 작업에 시달리며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 줄 사회연결망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더욱이 1993년 10월 찬드라 구릉 실종사건은 네팔 노동자에게 사회연결망의 중요성을 각인시켰다. 함께 살던 네팔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을 한 후 바람 쐬러 집을 나간 찬드라 구릉<sup>5)</sup>이 행방불명 되었기 때문이다. 네팔 동료들은 찬드라의 사진이 담긴 전단과 피켓을 들고 찬드라의 숙소와 공장 근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다니는 신도림 영등포 전철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찬드라를 찾아다녔지만, 그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집으로 오는 길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납치돼서 인신매매된 건 아닌지 살해되어 어디에 묻혀버린 건 아닌지 온갖 흉흉한 소문과 불안이 네팔 노동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네팔 노동자들은 낯선 한국 땅에서 자신의 생사를 확인해 줄 연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서로를 연결하고 지지해 줄 사회연결망으로 네팔 공동체 NCC에 가입하기 시작했다. 처음 22명으로 시작

5) 1993년 친구와 다투고 집을 나온 찬드라는 배가 고파서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후에 비로소 지갑을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 한국 말을 못했던 찬드라는 정신질환 행려자로 오인되어 2001년까지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다. 찬드라는 계속해서 ‘나 네팔사람’이라고 말했으나 무시되었다. 찬드라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NCC 지도부가 그녀를 찾기 위해 정신과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한 정신병원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6년 반을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던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다.

한 NCC는 모든 네팔 노동자를 연결하는 안전장치로 부상하게 되었다.

### 3. 상층 카스트로 구성된 NCC 리더십 교체와 주체적 행위자로서 NCC

개인의 능력, 자질과 상관없이 사회적 신분과 계급에 따라 정해진 직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카스트 제도를 가진 네팔은 1990년 민주화 이전까지 엄격한 신분 질서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했다. 상위 카스트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 경제 영역을 지배했고, 문화적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회 지도력을 장악한 계층은 학력 수준이 높은 상위 카스트 사람들이었는데 네팔 공동체 NCC도 사회자본과 문화자본이 풍부한 상위 카스트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추진됐다.

상위 카스트 계급이 주류인 NCC 창립 멤버들은 비 힌두 에스닉인 찬드라 구룽을 찾는 일에 소홀했고 농성과 같은 투쟁방식에도 부정적이었다. 다른 나라의 이주노동자들은 침묵하는데 네팔 노동자만 저항하면 일반 네팔 노동자들이 피해 볼 수 있으니 한국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나 노동단체를 통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로비, 캠페인과 같은 온건한 방식을 택하자는 견해였다. 하지만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고 대학에서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을 읽으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진보적 성향의 노동자들은 주말마다 찬드라를 찾아다녔고, 강제 출국이 두려워 몸을 사리는 사람들을 설득해 농성에 참여하도록 하고 네팔 노동자들에게 농성 소식을 알리며 지지와 연대를 독려했다. 1995년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악명 높은 산업연수제도의 강제노동, 여권 압류, 감금 상황을 이주노동자 상담단체에 알리고 브로커와 회사에 감금된 산업연수생들을 구출하도록 돕는 한편 부당한 제도를 폭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도 이들이었다.

찬드라 실종과 두 차례의 농성으로 네팔 노동자들의 지지를 확보한 진보적 그룹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NCC 창립 멤버들과 대립하며

NCC의 실질적 리더로 부상했다. 그동안 네팔 공동체 대표를 유지했던 상위 카스트를 제치고 네팔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비 힌두 카스트의 소수 종족이 대표로 선출된 것이다. NCC 창립회원이자 브라만 계급이었던 A는 이들을 가리켜 “무식한 사람. 술 먹는 사람, NGO도 모르고 공동체 정신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소수 종족 노동자가 새로운 지도부에 진입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상위 카스트 노동자와 비교해볼 때 비 힌두 에스닉 집단의 이주자 수가 월등히 많았기에 아무리 신분적 우위를 갖는다 해도 한국에서 수적 우세였던 소수 종족이 지도부로 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NCC는 네팔 노동자들을 돌보는 일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설치되지 않았던 시기 네팔 공동체는 한 국가의 외교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야 하는 모든 공적 업무를 담당했다.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 통역, 병간호, 모금, 본국 가족과의 연락, 장례, 유골 송환 등 네팔사람들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을 도맡았다. 네팔 노동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당사자와 NCC, 상담소 3자가 긴밀한 협조 아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성남, 부천, 서울, 수원, 의정부 등 전국 8~9개 상담소에 NCC 지부를 두고 상담소에서 네팔 노동자 모임을 개최하도록 유도했다. 공동체의 활동은 동료 노동자의 믿음과 신뢰를 얻어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했다. 특히 지도부는 어느 한 단체나 지역에 거점을 두지 않고, NCC 지부가 있는 상담소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상담소 내에 있는 네팔 모임이 NCC와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고, 상담소가 행사를 개최할 때 지도부가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거나 네팔 노래와 춤 공연팀을 파견해 행사에 힘을 실어주는 등 모든 상담소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다.

NCC는 특정 한국인 단체나 한국인 활동가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담소를 전략 거점으로 삼은 후 그 안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이처럼 NCC가 상담소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이 상호협력적이고 신뢰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 상담단체의 활동가들이 노동 운동, 학생운동 등 민주화 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로 정서적으로 공유되는 지점이 많았고, 이주노동자 상담소들 모두 신생 조직으로 어떤 단체도 대표성을 갖지 않았으며 특정 명망가가 장악하지 않았다. 새롭게 상담소를 설립 할 때 기존의 상담소를 방문해 조언을 요청하고 몇 달 동안 실습하는 등 협력적인 상담소 분위기는 네팔 노동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이 상담소 저 상담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건이나 문제를 의뢰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

#### 4. 계몽적 리더십

NCC 지도부의 특징은 네팔 노동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네팔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주력한 일이다. 네팔의 정치는 민주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했고 관료들의 부정부패로 네팔 민중의 삶은 민주화 이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NCC 지도부는 회원들에게 네팔 사회를 변화시킬 주체는 바로 자신들이며 나라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하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무엇이든 배워서 떠나자, 돈을 모아 네팔에서 미래를 준비하자”, “네팔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자”, “돌아가서 뭘 할지 생각하자”라는 미래에 대한 설계는 NCC 핵심 구성원들의 화두였다.

“그때 슬로건 하나 만들었다. 여기서 번 돈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작은 일이라도 해야 한다. 일하다 잡혀가더라도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하자.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네팔에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하자. 닭농장, 돼지농장, 건설 기술, 돌아가서 무얼 할지 할 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내자는 운동을 했다.” (1기 E)

이들이 본국의 사회변화에 희망을 걸었던 것은 과거 한국이 해외로 인력을 송출해 외화를 벌어들였고 식민지와 전쟁, 장기간 독재를 경험했지만, 현재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한국의 발전상 때문이었다. NCC 창립회원이자 산업재해 농성에 참여했던 A는 해외 원조국이었던 한국의 발전 동력을 새마을 운동에서 찾고 네팔이 변화하려면 경제 정치 개혁과 함께 나태 무지 불신을 떨쳐버릴 정신 개혁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며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관한 연구를 위해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에서 공부한 후 네팔에 새마을 운동을 보급하는 운동(양혜우 2011:106 참조)을 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병아리 부화시키는 방법과 양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양계장에서 일한 후 카트만두에서 가장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고, E와 F는 1년 반 넘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편집, 그래픽과 컴퓨터 조립 기술을 배우고 귀환 후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다가 현재 사립학교 교장과 불교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일을 마친 후 피곤한 몸과 비싼 학원비를 내더라도 미래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꺼리는 양계장을 일부러 찾아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NCC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 네팔의 미래를 설계하고 네팔을 변화시키자는 계몽운동의 결과였다.

NCC 대표들은 전통적 규율과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진 젊은 노동자들이 갑자기 큰돈을 벌게 되어 소비와 술, 향락에 빠져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을 우려했다. 유명 브랜드 신발이나 옷을 입고 나이트 클럽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NCC는 네팔 노동자들이 과소비와 향락 문화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회원들을 자각시켰다.

“사람들이 포커를 많이 했다.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부터 포커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계속 말했다. 술 먹고 여자랑 같이 다니는 사람들, 나이트 가는 사람들.... 돈 써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계속 사람들을 모임으로 불러냈다.” (1기 D)

NCC 대표들은 놀음하는 사람들의 숙소를 찾아가 돈을 아끼라고 설득했고,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상담소에 가서 한국어나 컴퓨터를 배우라고 설득했다. 물론 모든 네팔 노동자들이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지만, 공동체가 제시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 ‘저축’, ‘네팔 노동자 간의 신뢰와 호혜’는 공동체의 규범으로 작동했고, 이러한 규범은 도덕적 자원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공유되고 네팔 노동자들의 이탈을 일정 정도 저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NCC의 규범을 내재화시키고, 우리 모두 함께 있다는 정서적인 지지를 갖도록 한 매개체는 소식지였다. 소식지를 통해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설명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담소와 서비스 내용을 알리는 한편 농성하는 노동자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것을 당부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소식지는 양산, 김해, 구미, 부산 등 지방에서 일하는 네팔 노동자들에게 전달돼 흩어진 노동자를 연결했다.

네팔 공동체는 한국에서의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네팔 사회와의 연대를 위한 실천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공산당 산하 네팔 노동조합 총연맹 지펀드(Gofent)의 지도부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투쟁과 조직화 등에 관해 의논하고, 모금을 통해 네팔 민주화 운동과 노동조합 총연맹인 지펀드를 후원<sup>6)</sup>했다. 지펀드는 한국에서 농성 등 이주 운동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귀국했을 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네팔에서도 노동 운동과 인권 활동·산재 보상금 받아주기, 산재 가족 돕기, 돌 끼는 아이들 지원사업, 이주노동을 떠나는 조합원들에 대한 사전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이는 NCC와 진보 노동조합의 강한 사회자본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6) 네팔 공동체 지도부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을 채택한다고 하였으나 지도부 상당수가 네팔 공산당과 노동조합 총연맹 지펀드나 마오주의자 정당에 매월 임금의 2~30%를 송금할 정도로 네팔 정치와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사람이 많았다. 당시 네팔 공동체 지도부 중 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하고 네팔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도 다수 있었다.



또한 전통 축제, 문화행사, 축구 경기와 같은 스포츠 시합도 네팔 공동체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자신들의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일 년에 한두 번 대학 강당이나 종교시설 등을 빌려 춤과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보내거나 고국의 유명 가수를 초청해 콘서트를 개최<sup>7)</sup>하여 네팔 노동자들의 참여를 끌어냈다. 축구대회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적인 회합의장이었는데 대규모 축제와 운동 대회는 자신들의 공적 공간이 주어지지 않은 시기 네팔 노동자들만의 공간을 창출함으로 노동으로부터 해방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50여 개의 서로 다른 에스닉과 64개의 정형화된 직업 카스트가 분열시켜 놓은 계급을 넘어 네팔 국민이라는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장이 됐다.

1기 NCC는 외적으로는 신분적 불안, 추방의 위협, 법과 제도에서 배제된,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별거벗은 생명 호모사케르(Homo Sacer)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고 내적으로는 서로를 지지하고 연결하며 협력하도록 이끌었다. 나보다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먼저 숙고하며,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목표로 삼은 계몽적 공동체로 네팔 노동자들에게 시민적 가치와 자질을 함양시키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

7) 네팔의 유명한 가수를 초청한 문화 공연 입장료는 5만 원으로 노동자들의 수입에 비해 매우 큰 금액이다. NCC는 네팔 노동자들의 화합이 1차 목적이지만 '본국의 가수에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네팔 노동자들에게도 네팔에서는 1~2일이 걸리는 도시로 가야 볼 수 있는 공연을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어서 양쪽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공연 수익금은 네팔 공동체의 활동 기금으로 사용했다.

## IV. 2기 : 정체성 공동체 (1999~2005)

### 1. 소규모 에스닉 공동체의 분출

그동안 NCC 지도부는 단일 조직을 지향하며 분파적인 조직 설립을 강력하게 통제해 왔다. 지도부는 상담소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별 지부와 불자, 기독교 모임, 스포츠 커미티 조직만 허용하고 그 외 조직을 만들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한국에서 번 돈을 모아 고향 마을을 도우려면 에스닉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일부 에스닉 그룹의 요구에 대해 “고향을 중심으로 한 조직은 종족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내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분파적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서로 다른 종교를 갖더라도 네팔사람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우리 있을 때 다른 커미티 만들지 말자고 했다. 미팅 많이 했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린 네팔사람이다. 크리스마스 파티하면 크리스천 커미티가 조직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불자 커미티가 행사 준비하고... 왜 교회 가냐, 왜 불교가냐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다.” (1기 D)

이처럼 강력한 리더십으로 단일 조직을 유지했던 NCC 지도부는 IMF가 터지자 자신들의 힘으로 네팔 사회를 변화시킬 때라는 합의를 모은 후 같은 날 같은 비행기로 출국해 버렸다. NCC 지도부 30명이 한꺼번에 귀환해 지도력 공백 상태가 되자 그동안 억눌렸던 지역, 종족, 종교, 정치적 성향에 따른 소규모 조직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50여 개 이상의 모임이 생겨났는데 이러한 조직 분화는 네팔 사회에서 불붙고 있던 에스닉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90년 민주화 이후 네팔은 에스닉 정체성 운동이 시작된다. 그동안 지배층은 하나의 민족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단일한 정체성을 갖고 한

두 중심의 종교 문화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통치 전략을 내세워 수많은 에스닉 집단의 언어와, 문화, 종교 및 자율성을 침해하고. 모든 에스닉 집단을 주변화하고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시켜 왔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 결과 30년의 단일 통치체제가 종식되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면서 카스트 제도 폐지와 다민족, 다종교, 다언어 국가임이 선포됐다. 하지만 공공 영역은 여전히 고위 카스트가 지배하고 소수 집단은 대표되지 않았다. 이에 마오쩌둥 혁명 노선을 따르는 급진세력인 마오주의자들은 에스닉 억압 종식, 세속 정부 구성, 언어 동등성, 지방자치 등이 포함된 40개 요구서를 내걸고 인민 봉기를 선언했다. 민족 정체성의 정치와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우며 민족 자각 운동에 불을 붙인 것이다. 부족, 종족, 하위 카스트에 기반을 둔 단체와 조직들은 자신의 토착 문화와 언어, 종교 보존과 발전을 요구하는 운동(김경학 2014:42)을 확산시켰고, 한국의 네팔 노동자들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카스트, 에스닉, 출신 지역,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다. 소규모 공동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자 NCC 지도부는 NCC는 모든 네팔 조직들의 umbrella(umbrella)로 모든 모임의 상위에 있음을 선언하고 신생 소조직들을 통솔하고자 했다. 하지만 NCC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나선 대항 그룹이 태동했는데 이는 정체성 인정을 요구하는 에스닉 공동체가 아니라 고용허가제 수용과 불수용을 두고 대립한 네팔 공동체 내부 세력이었다.

## 2. 제도적 전환기 속에서 주도권 투쟁

2002년 월드컵을 앞둔 한국 정부는 일할 목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월드컵 경기 관람을 빌미로 한국에 들어오면 미등록 체류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기존의 미등록 체류 노동자들의 체류는 허용하고 신규 입국한 미등록 체류자는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존재하는 미등록 체류자와 새롭게 발생할 미등록 체류자를 구분하여 기존의 미등록 체류자들에게 1년간 출국을 유예하는

합법화 조치를 시행하고 월드컵 기간에 입국해 미등록 체류자가 된 사람들은 관용 없이 추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동안 숨죽여 살던 미등록 체류자들은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마음껏 여행할 수 있으며 도망치듯 공장을 옮기지 않아도 되는 합법화 조치를 환영했고 새롭게 제정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집회와 캠페인 등의 법 제정 운동에 참여했다. 단속이 두려워 공장에서만 지내던 사람들도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요구를 밝히고 자신들의 존재를 가시화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면 조치에 반기를 든 세력이 있었다. “한시적인 사면 조치는 미등록 체류 노동자를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이주노동자 상담단체 중심으로 추진되는 고용허가제는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와 다를 바 없는 고용주 중심의 제도이기 때문에 1년짜리 사면과 고용허가제를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 그룹이었다. 사면을 위한 등록을 독려하고 고용허가제 제정에 동참한 NCC 행보에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새로운 대항 세력은 한국인이 주도하는 운동을 거부하고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중심이 된 운동을 목표로 내걸고 NCC와 충돌했다.

“2002년 등록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NCC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NCC를 볼 때 using 되는 그거로 생각했다. 누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UNITED NEPALESE MIGRANT COMMITTEE라는 조직을 (UNMA) 만들었다. NCC를 대신할 하나의 센터를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8~9개의 지역 위원회, 민족 커뮤니티가 모여 새로운 연대체를 만들었다. UNMA가 만들어지면서 NCC가 위기를 느끼고 경쟁하면서 리더십 투쟁이 일어난 것 같다.” (2기 c)

NCC가 대표성만 갖고 네팔 노동자들의 문제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새로운 대항 세력은 향후 운동은 “이주노동자 상담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이 아니라 강제 추방되더라도 이주노동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안고 가야 할 것”이라며 “NCC가 법 제정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상담단체 지원을 받아 6.3 빌딩으로 나들이나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새로운 연대체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NCC 지도부는 UNMA 조직과정에서 NCC와 상의 없이 일방적인 창립식을 열고 조직을 선포한 UNMA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조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단체와 단체 싸움으로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때 내 돈이 들더라도 NCC가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행사도 만들고 일도 만들었다.” (2기 b)

NCC 지도부는 UNMA 창립식에 참석했던 네팔 공동체 회장을 해임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할 정도로 내홍을 겪었다. 핵심 구성원이 노동조합으로 흡수되어 조직력이 약해진 NCC는 문화 운동을 통해 조직을 확대했고 UNMA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평등노조를 기반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갔다. NCC는 조직의 정통성을, UNMA는 노동자 계급성을 내세우며 각기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도권 투쟁을 벌이며 갈등하던 두 집단은 2003년 정부의 강제 추방 정책이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의 조직으로 연대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NCC와 UNMA는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 정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조직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는 합의를 끌어낸 후 ‘네팔 투쟁단’이름으로 농성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명동성당 농성 대표자 구성을 두고 한국인 활동가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며 외노협에 기반을 둔 NCC 소속의 네팔 노동자들은 성공회 성당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노동조합 중심의 네팔 노동자는 명동성당에 남아 각기 다른 농성 대오에 참여하며 다시 한번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된다.

### 3. 한국 이주 운동단체 갈등이 초래한 네팔 공동체 분열과 갈등

NCC의 갈등은 한국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의 분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주노동자 상담소의 연대체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1995년 네팔 산업연수생 농성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 국내 국제연대의 창구 마련을 위해 조직된 연대체로 서울, 안산, 수원, 인천, 부천, 남양주,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양산, 창원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외노협은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위한 시위와 농성, 서명운동, 캠페인, 소송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법 개정, 아동 권리협약 이행, UN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약 비준 운동을 추진하는 등 이주노동자 운동조직의 대표성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제정을 앞둔 2001년 법 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부재한 상황이 발생하자 외노협 상근활동가들은 ‘이주노동자 상담단체들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 제정 투쟁에 머물러 있고, 정부나 국회 로비와 여론 활동, 캠페인에만 집중하는 등 투쟁성이 사라졌으며 한국인 활동가가 모든 일을 해줌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자발적 성장을 가로막고, 너무 광범위한 연대체여서 집중된 행동과 공동 투쟁 방향을 정립할 수 없다’라고 비판(조대환 2001/박경태 2005:108)하며 집단으로 사표를 낸 후 이주노동자 투쟁본부(이노투본)를 설립하고 외노협 단체들의 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다.

외노협 상근활동가들의 집단 탈퇴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은 외노협 전임회장과 현직 부회장 등이 소속된 단체들에게까지 이어져 ‘명망가’ 중심의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대표자에 의한 정보 독점, 특정 종교 중심의 조직 운영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노협 탈퇴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설동훈나 2005:93). 이후 이주여성 인권연대(2001)와 이주인권연대(2003)를 발족시키면서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이주노동자 노동 운으로 분열하게 된다. 친밀감 높은 단일 연대조직에서 제각기 다른 목표와 지향점을 내세운 연대체로 분화하면서 적지 않은 긴장이 발생하고 단체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자 네팔 공동체는 과거와 같이 모든 상담소를 자유롭게

왕래하며 상담을 요청하거나 단체 활동에 관여하는 등의 교류가 불편해졌고, 대립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끼어 미움을 받기도 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외노협 사람들이 이주노동자에게 적대감을 가진 것 같았다. 한국 사람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이주노동자에게도 그런 감정을 가졌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2기 b)

위의 내용을 토로한 b뿐만 아니라 당시 분열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단체들의 갈등이 이주노동자들을 분열시켰고 한국 단체들 사이에 끼어 서로 반목하게 되었다고 기억한다. 대립 구도는 친외노협 성향인 NCC와 친이노투본(탈퇴한 외노협 활동가)과 이주인권연대 성향의 UNMA와의 갈등으로 번졌다. 따라서 명동성당과 성공회 성당 농성은 단지 농성장의 공간 분리가 아니라 어떤 조직이 대표성을 갖느냐 하는 권력 투쟁의 장이 됐다. 당시 농성에 참여했던 a는 네팔 조직 간의 대립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여러 개의 원형 탈모증이 생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면서

“마음 아픈 사연은…. 왜 이렇게 네팔사람들끼리 이렇게 됐냐 했더니….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때문이야. 상담소들이 가장 문제였어” (2기 a)

라고 회상하며 귀환한 후에야 자유롭게 말하게 됐다며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 4. 명동성당, 성공회 성당 농성으로 획득한 사회자본

2003년 제정된 고용허가제는 그동안 법 제정을 위해 투쟁해 왔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국가 간 MOU를 통해 투명하게 인력을 도입하고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하되 사업장 이동은 3회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제한 조건을 내걸었지만, 문제는 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던 4년 이상 체류 노동자들이 사면에서 제외되고 추방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법 제정 이후 정부는 노동부, 경찰, 중기협, 출입국관리소가 참가하는 합동 작전을 통해 미등록 체류자를 색출하고, 미등록 체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부의 강경책이 발표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동안 일했던 회사로부터 쫓겨나기 시작했고 절망한 노동자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들이 요구한 법에 의해 자신들이 쫓겨날 처지가 된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쓰다 버리는 일회용 배터리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과 희로애락을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했던 동료이자 시민’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농성을 시작하게 된다.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필리핀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장 큰 규모의 이주노동자 농성이었다. 농성은 합법화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성공회 성당과 명동성당으로 쪼개져 네팔 노동자 집단의 분열을 공고화했지만, 농성을 통해 한국의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을 만나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당사자 중심의 운동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농성하는 동안 한국의 법과 제도, 노동자의 권리를 배운 네팔 노동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발언해야 한다는 자각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고, 언론, 문화 예술 활동으로 인정투쟁을 벌이는 그룹도 생겨났다. 다국적 밴드 <스탑 크랙다운>은 노동자 투쟁 현장이면 어디든 찾아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알렸다. 투쟁 가수 목탄 미누<sup>8)</sup>는 프레스 기체에 손목이 잘려 나간 동료들의 잘린 손을 상징

8) 목탄 미누는 1992년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 1세대이다. 2003년 성공회 성당 농성에서 미얀마 노동자들을 만나 <스탑 크랙다운> 밴드를 결성하고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문화운동가로 변신했다. 이후 이주노동자 방송 대표로 활동하다가 한국 생활 18년째 되던 해 출입국관리소 직원의 표적 단속으로 추방된다. 불법체류자가 소고기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였다. 추방된 지 9년 만에 <안녕, 미누> DMZ 국제 다큐멘터리영화제 참석을 위해 한국에 다녀간 후에



하는 빨간 목장갑을 끼고 박노해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로 그 어떤 투쟁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농성을 통해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을 형성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다국어로 된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 방송하고, 직접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영화제에 출품하는 등 이주노동자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로 나아갔다. 2004년 설립된 이주노동자 방송국은 네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주노동자 상담단체나 NCC라는 제한된 영역에 머물지 않고 이주민과 한국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네팔 공동체들의 엠블렐라 역할을 강조해 왔던 NCC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힘을 잃은 후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 지원 컨소시엄>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핵심 대표들이 귀환했고 NCC에 대항해 UNMA를 조직하고 이주노조 설립에 초석을 놓았던 핵심 멤버들도 출입국관리소의 표적 단속으로 추방당하면서 NCC와 네팔 공동체 리더십은 다시 공동화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 V. 3기 : 개인화된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와 정주자 공동체 (2006~ )

### 1. 소셜 미디어 공동체와 MZ 세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노동자들은 네팔의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네팔 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윗세대 선배들과 달리 1996

---

한 달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 47세였다. 그는 고국인 네팔로 돌아가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 활동가로, 구호활동가로, 귀환 노동자 조직을 위해 활동했었다.

년 마오주의자들이 벌인 내전으로 10년간 민족 간의 폭력과 분열, 사회 시스템의 붕괴를 경험한 세대들이다. 왕정 폐지라는 정치 변화를 겪으며 보랏빛 미래를 선사해줄 것 같았던 개혁 정당들에 희망을 걸었으나 정치적 쟁투와 부정부패에 실망한 나머지 거대한 정치적 구호보다 현실의 작은 변화를 추구하거나 개인적 안위에 골몰하는 이른바 네팔의 MZ 세대들이다. 한국에 오기 위해 비싼 학원비를 지불하고 경쟁률 높은 시험에 합격한 고학력 중산층인 이들은 열악한 전기공급과 불안정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자오락 게임, 인터넷을 주로 사용했던 세대로 공동체에 기반한 소속감, 집합적 행동보다는 취미나 취향에 따른 개인적 관계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조직 활동보다 온라인을 통한 활동을 더 선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 이동에 관한 제반 정보나 지원도 소셜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다. 이들은 온라인 속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

온라인 밖에서의 모임은 동대문 시장에서 이뤄진다. 동대문역 3번 출구에서 창신동 시장으로 향하는 휴일 길목은 네팔 거리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네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네팔 식료품점에서 음식 재료와 향신료를 사는데 아무런 언어 제약받지 않으며 당구장 노래방 어딜 가도 네팔인들을 만날 수 있어 일부러 찾아와 편안함을 즐긴다. 청계천, 동대문 일대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자리에 네팔 노동자들이 자리 잡은 후 가족, 친척 이웃을 불러들여 네팔인 집단 거주지를 형성했고, 네팔 인구가 늘자 네팔 식당과 식품점, 여행사 등의 상점이 즐비하게 들어서게 된 것이다. 『동대문 네팔 타운의 희로애락』의 저자 육성철(2018)은 동대문을 네팔사람의 정서적 중심지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로 해석하며 식당을 매개로 만남과 소통이 이뤄지고 시장을 중심으로 문화의 공간이 창출된다고 설명한다. 과거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주노동자 상담소를 찾았다면 이제 동대문에 가서 친구를 만난다. 상담소에서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만

나 서로 위로하고 부당한 법과 제도에 분노했다면 이젠 당구를 치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휴일을 보낸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과 근로기준법 63조의 휴게시간 조항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는지는 더 이상 논의와 토론 거리가 되지 않는다. 발생하는 문제는 SNS를 통해 해결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음으로 삭일뿐 왜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 더 이상 인과관계를 찾지 않는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소통도 마찬가지다. 네팔어로 된 소통은 편안함을 주고 의견을 나누는데 자유롭지만, 고립 속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한국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한다. 개인의 고민을 집단의 고민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분노를 집합행동으로 구현해 내지도 못한다. 6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자기 살해라는 극단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도록 방치한 것은 온라인 공동체의 취약함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 2. 정주자 공동체 - 재한네팔인협회(Non-Resident Nepali Community)

현재 네팔 이주자/노동자의 핵심 세력은 시장 중심 공동체를 형성한 정주자들이다.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NCC는 3만 5천 명이 넘는 네팔 노동자들을 단일 공동체로 묶어내기 어려울뿐더러 네팔 대사관(2007년)이 생기면서 과거 NCC가 담당했던 네팔 노동자의 사망 처리, 장례, 시신 송환 등의 일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졌다. 노동권과 인권을 위한 투쟁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으로 위임되어 있어 NCC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만 하는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NCC가 유명 무실한 조직이 된 것은 재한네팔인협회(NRN : Non-Resident Nepali Community)가 결성된 이후이다. 2006년 조직된 재한네팔인협회는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투자자 등 모든 네팔인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네팔 외교부가 공식 승인한 기관이다. 전 세계 80개국에 네팔인협회가

활동하고 있어 네트워크 규모 면에서 NCC를 압도한다. 재한네팔인협회는 노동자, 학생, 기업인 등 모든 네팔인을 대표하는 NRN이야 말로 네팔인을 대표하는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NCC는 30년 역사를 가진 NCC가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며 NRN도 NCC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찾지 못한 NCC는 구심 세력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그저 옷어른들의 향수가 담긴 전설의 조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한편 재한네팔인 협회 활동 주체는 안정적인 체류와 경제적 여력이 있는 한국 국적 취득자, 영주권을 가진 정주자들로 동대문 근처에서 식당, 여행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 자영업자가 주를 이룬다. 대사관 역시 불만을 조직해 변화를 만들어 내는 노동자보다 정부와 대사관에 우호적인 경제인들이 훨씬 더 실익을 주는 파트너로 여긴다. 주체의 변화는 사업의 관심사도 바꿔놓았다. 그간 노동자 권리와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NCC에 반해 재한네팔인 협회는 네팔 사회 지원과 관광 문화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종로구 창신동 시장 일대를 네팔 문화 특구로 만들어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희망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논의하며 동대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재한네팔인협회 지도부의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의 목적도 변했다. 과거 NCC 지도부들이 네팔 사회의 정치 개혁 혹은 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해 왔다면 상인 리더십은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배고픔을 없애고 경제 수준을 올리면 정치적 문제는 자연스럽게 개혁될 것”이라며 정치적 문제 해결을 시장에서 찾는다. 네팔 노동자들도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재한네팔인 협회 대표를 향해 ‘우리편 아닌 사람들’, ‘사업가’로 여기곤 한다. 이들은 실제 노동자들의 현실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노동자 권리나 부당함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불법체류자가 발생하지 않고 순조로운 노동력 순환이 이뤄지는 것을 지지한다. NRN은 네팔 노동자들이 왜 자살했는지 무엇이 이

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원인에 주목하기보다 자살 예방 교육을 대안으로 삼는 등 접근방식에서부터 계급적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외교부의 승인을 받은 단체라는 공신력은 자원을 동원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2015년 네팔 대지진,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국가적 재난 시기, 네팔 지원을 위한 모금에 많은 네팔사람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었던 것도 전체 네팔인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상징성이 컸다. 재한네팔인협회 대표 <나>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직후 네팔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와 방호복, 검사 키트 보내기 운동을 실시했는데 홍보한 지 일주일 만에 2억 원이 넘는 돈이 모였다고 한다. SNS에 모금 공고를 올리면 각자 형편에 맞게 후원금을 보내는데 이는 재한네팔인 협회의 공신력이 믿음을 준 것 같다고 말한다.

재한네팔인 협회 회장과 임원으로 얻은 평판자본은 한국과 네팔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때론 초국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다. 네팔인 협회 1.2대 회장을 지냈고, 한국의 네팔관광협회 회장을 지낸 <가>는 비영리민간단체 헤퍼 코리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네팔에 한국 젓소 101마리 보내는 운동><sup>9)</sup>에 참여해 양국 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등 네팔 원조 유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네팔 정부의 고위 관리, 정치인이 방한할 때 면담과 회합하는 시간을 가지며 한국과 네팔을 넘나드는 초국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는 네팔인 모두를 대변하는 조직의 대표라는 상징성이 평판자본으로 작용한 것이다.

---

9) 헤퍼인터내셔널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부터 1976년까지 총 44회에 걸쳐 소 897마리, 황소 58마리를 포함해 젓소·염소·돼지·양·닭·토끼 등 가축 3,200마리를 항공기와 화물선으로 한국에 보내와 한국 축산업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에서도 헤퍼 코리아를 조직해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나라의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원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축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2022년 열악한 환경에 잘 극복할 수 있는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젓소 101마리의 네팔에 보내는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헤퍼코리아(2023.1.5.). <https://www.heiferkorea.org/koreahistory/>)

### 3. 새로운 리더십의 부상

재한네팔인 협회의 주요 활동가로 부상한 주체는 여성들이다. 일정한 체류 기간 후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노동자와 달리 영주권과 한국 국적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조직의 주체가 변하기 시작했고 여성의 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네팔은 카스트라는 신분적 위계가 남아 있고, 가부장적이며 성별 분업이 뚜렷한 사회로 전체 해외 이주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10%밖에 안 될 정도로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해 배타적이고 부정적이다. 네팔 이주 동향을 연구 보고서(Laurent Nossavie · Anastasiya Denisava 2018:11)는 남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해외 이주보다 국내 이주 경향이 높지만, 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해외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다고 분석했다. 홍콩, 이스라엘, 싱가포르, 한국에서 일하고 귀환한 여성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포우라키(POURAKY) (김정선 2015)라는 NGO를 창립하고 여성들의 안전한 이주와 이주국에서의 노동권 보호와 네팔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비교적 높은 학력 자원을 가진 진취적인 여성들이 해외 이주노동의 경험을 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대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결혼이주여성 지원센터, 출입국관리소에서 통역과 상담 활동하면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보상, 사회보험, 출입국관리 체류 및 비자 전환에 대한 행정 시스템을 파악하게 된 후 네팔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적당한 의료기관을 찾아주고, 병원, 출입국관리소 방문에 동행해 통역을 도와주며, 법률가 혹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주노동자와 연계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다. 그녀는 어려움에 부딪친 네팔 노동자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는 것이 과거 헌신적인 NCC 지도부를 연상케 하는데 실제 NCC 1기 활동에 참여하며 NCC 지도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귀환한 NCC의 D 대표와 교류하며 한국의 네팔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의논한다고 한다. <나>의 적극적이고

현신적인 행보는 남성들이 독점해 왔던 재한네팔인 협회 대표직을 맡게 되면서 여성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 4. 우먼 포 우먼 : 여성은 여성이 돕는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포우라키 구호가 이주노동을 마치고 귀환한 네팔 여성들이 만든 NGO 단체의 구호라면, 한국의 네팔 여성들의 구호는 ‘우먼 포 우먼(Woman for Woman)’이다. ‘여성은 여성이 돕는다’라는 취지로 세워진 네팔 여성 단체 ‘우먼 포 우먼’은 제일 먼저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네팔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규모가 작고 여성 간의 사회자본이 부족해서 도와줄 연고자를 찾기 힘들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과정에서 잠잘 곳이 없는 여성 노동자들은 성희롱 및 성폭력에 노출될 우려가 높는데 우먼 포 우먼은 오갈 곳 없는 여성을 위해 쉼터를 운영한다. 코로나 발발 이전에는 새길 교회, 나마스떼 코리아, 이주노조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방 2개 딸린 옥탑방을 마련해 18명까지 머문 적이 있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원이 중단되어 여성들의 회비로 40만 원의 월세를 충당하고 있다. 우먼 포 우먼은 여성들의 안전한 쉼과 거주를 제공하는 것 외에 여성들 간의 친밀성과 호혜성, 신뢰 형성을 위해 여성들의 전통 축제인 티즈(teej) 축제를 동대문에서 열고 여성들만의 해방의 공간을 만든다. 고된 시집살이를 친정 식구들에게 얘기하며 노래와 춤으로 위로받고 남편의 성공을 빈다는 의미를 가진 티즈 축제는 한국으로 건너와 이주민으로 받는 차별과 냉대를 여성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며 여성들의 성공을 지지하는 축제로 변모했다. 축제 참가비로 모인 돈은 쉼터 기금과 우먼 포 우먼의 활동 기금으로 사용된다. 새롭게 부상된 여성 리더십은 그동안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 균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떠오르고 있다.

## VI. 결론

네팔 민주화 운동 세대였던 1세대 NCC 지도부는 단일 공동체를 유지하며 계몽적인 활동을 벌였다. 겉으로는 한국인 상담단체에 동원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전략은 상담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상담소와 협력하며 한국인이 가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네팔의 정치사회개혁에 계속 주목하며 지지 정당에 후원금을 보내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 기반을 네팔 본국에 두고 활동해 온 세대라 할 수 있다. 네팔 공동체 2기는 네팔 소수자 정체성 발흥에 영향을 받아 구릉, 림부, 셸파, 따망 등의 다양한 에스닉 공동체와 치타완, 포카라, 붓돌 등 지역 공동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해 누구나 하나쯤 공동체에 가입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주도권을 잡은 것은 계급성에 기반한 노동조합운동이었다. 네팔 노동자들의 농성, 단식, 추방이라는 강력한 저항을 통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초석을 놓았다.

사회변화, 노동자 권리, 타인과의 연대라는 공적인 가치를 추구하기보다 개인의 경제적 보상과 가족의 안위에 더 관심을 두는 네팔의 MZ 세대 등장은 새로운 공동체 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위적 투쟁보다는 생활개선에 대한 가벼운 요구가 더 많이 표출되고, 비장한 각오보다 풍자가 익숙한 투쟁방식이 되고 있다. 약한 네트워크는 사소한 정보만 제공할 뿐 고립된 개인을 공동체로 불러들이지 못하고, 개인의 고충을 다른 사람의 고충과 연결하며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하지만 마이클 월저(Michael Walzer)가 말한 것처럼 완전히 이질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존재들이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미의 가치 공동체, 서사 공동체, 연대 공동체(Rosa, Hartmu 2017:79)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 네트워크 안에서 맛있는 식당, 값싼 상점, 관광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사소한 소통을 넘어 고립된 사람을 찾아내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 개인의 서사를 기록하며, 부당한 일에 날갯짓을 보태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연대 공동체가 가능한지는 지금도 실험 중이다.



## ■ 참고문헌

- 김경민, 김재휘, 손성동(2020), 「그들은 왜 심터를 들 수 밖에 없는가? 네팔여성이주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전략적 대응, 그리고 정체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학』 36, 사회과학연구원, 79-116.
- 김경학(2014), 「국내 네팔 이주노동자의 초국적 가족유대」, 『남아시아 연구』 20-2, 인도연구소, 25-50.
- 김상중(2004), 「브르디외, 콜만, 페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 38-6, 한국사회학회, 63-95.
- 김유나(2021), 「네팔 시민권 법제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91, 법학연구소, 1-25.
- 김정선(2013), 「귀환이주여성들의 ‘이주 안전망’ 만들기:네팔의 포우라키(Pourakhi) 액티비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9-4, 한국여성학회, 191-236.
- 김현정(2021), 「취향공동체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논의 : 방탄소년단 팬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5-1, 한국정치사회연구소, 77-102.
- 박경태(2005),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경제와 사회』 67, 비판사회학회, 88-112.
- 박정석(2013), 「네팔의 민주화와 종족성의 정치(1): 제 2차 인민봉기 이후를 중심으로」, 『남아시아 연구』 18-3, 인도연구소, 83-109.
- 박민영(2017), 「신자유주의와 페트남의 ‘사회적 자본」, 『인물과 사상』 233, 116-132.
- 설동훈(2000가),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운동, 1993-2004년 :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 469-487.
- 양혜우(2011), 「귀환 이주활동가의 사회운동과 초국가적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 네팔, 방글라데시 노동자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 석

사학위논문.

- 유석춘·정미혜·정병은(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비.
- 이란주(2003), 『말해요. 찬드라』, 삶이 보이는 창.
- 이선옥(2005),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 : 고용허가제 도입시기 명동성당 농성단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 석사 학위논문.
- 이태정(2011), 「이주노동자의 정체성과 노동조합 활동」, 『호모미그란스 -이주, 식민주의, 인종주의』 4, 이주사회학, 31-57.
- 이효정(2021), 「네팔 네와르족의 힌두교, 불교 혼합 양상 분석」, 『인문사회21』 12-4, 아시아문화학술원, 116-132.
- 정정훈(2006), 「탈국가적 정치주체로서 이주노동자에 관한 연구: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조합 활동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 석사학위논문.
- 이주연·기민도·우다라아이·윤간우·한선미(2019), 『네팔이주노동자 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 원진재단부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결과 보고서.
- 이주노동자 귀환정착지원프로그램 개발컨소시엄(2005), 『이주노동자 자발적 귀환 및 재통합을 위한 현황과 과제』, 이주노동자귀환정착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업 보고서.
- Castell Castel 지음, 박행웅 옮김(2004), 『인터넷 갤럭시』, 한울.
- Gerrg Katsiaficas 지음, 원영수 옮김(2014), 『아시아의 민중봉기 2- 필리핀, 버마, 티베트, 중국, 타이완, 방글라데시, 네팔, 타이, 인도네시아의 민중권력』, 오월의 봄.
- Lin, Nan 지음, 김동윤·오소현 옮김(2001), 『사회자본』, 커뮤니케이션 북스.
- Rosa, Hartmu 지음, 한상원 옮김(2017),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 Robert David Putnam 지음, 정승현 옮김(2009), 『나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 Ina Zharkevich(2019), *Maoist People's War and the Revolution of Everyday Life in Nepal*.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rry, S.(2016), *History of Nepal*, Abidjan, Sonit Education Academy.
- Laurent Nossavie · Anastasiya Denisava(2018), *Youth Labor Migration in Nepal*,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 Madhu Sudhan Atteraya(2021), “*Perceived Risk Factors for Suicide among Nepalese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12), 1-12.
- Vignesh Karthik KR · Vishal Vasanthakumar(2022), “*Caste, then Class*”, *A Global Journal on Social Exclusion*, 3(1), 107-122.
- <https://blog.naver.com/mhyang530/222526236924>(검색일 2021.11.05.)
- <https://www.heiferkorea.org/koreahistory/>(검색일 2023.1.5.)

❖ ABSTRACT

From a Single Unit Community to a Social Network  
– Records of the 30-year history of the Nepalese  
Community in Korea

Hae Woo Yang

Cross-Cultur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On January 23, 1993, 22 Nepalese workers established the Nepalese community at Jongro Cathedral. Nepalese people gathered with the goal of survival, regardless of the class, ethnicity, religion, or political orientation. In order to secure the human rights and workers' rights of migrant workers, it has become a core subject leading the Korean migrant worker movement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all rallies, sit-ins, and campaign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Migrant Labor Movement, it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ecuring labor rights to the extent that there is nothing to record, except for the organized activities of Nepalese workers and Nepalese communities. In Korea, migrant workers are still suffering industrial accidents, unpaid wages, abusive language, and assault, and more than 60 people are ending their own lives. Why did the Nepalese society stop fighting when Nepalese agricultural workers are being forced to work long hours under section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live in accommodations that do not have air conditioners, toilets, televisions, and Wi-Fi connections?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ocess of change in the Nepalese community over the past 30 years and examine the challenges currently

faced by the Nepalese community.

Key Words : The history of the migrant movement, The history of the Nepalese community, Migrant workers' social network, The division and conflict of the migrant workers' movement. Town, Migrant Workers' Support Organization

■ 논문투고일 : 2023. 01. 10

■ 심사완료일 : 2023. 02. 05

■ 게재확정일 : 2023. 02. 07

